

윤 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입법·예산 전쟁'

민주 "모순적 예산" 칼질 예고 국힘 "방만재정 정상화" 방어 '김건희 방지법' 등 뇌관 수두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함에 따라 여야의 '100일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중점을

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어 협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버리고 있다.

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당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

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당 예산이라 폄하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당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

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 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 차가 작지 않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이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전입 정권의 실정을 낱알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에 탈북어민 복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김건희 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파티팅 외치는 국회의장과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추석 전 '새 비대위' 속도전

'윤핵관' 2선 후퇴 속 잔걸음 권성동 거취 등 곳곳 압초

'원조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윤핵관 논란'을 비롯한 그간의 여론 내용이 진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핵관 양대 축인 장 의원이 백의중군을 선언하면서 '윤핵관 만형'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도 새 비대위 출범 후 정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촉진 정치' 논란에 섰던 두 의원

의 거취 정리 흐름과 함께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의 닷을 올리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호응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속도전을 내는 중인 '새 비대위'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뜻)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장 의원이 스타트를 끊은 '윤핵관 2선 후퇴'도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쇄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여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극단의 법정 다툼으로 치달은 데다, '장핵관' (장제원 핵심 관계자), '권핵관' (권성동 핵심 관계자)으로 요약되는 윤핵관 내부 분열에도 책임을 져

야 한다는 목소리로 여론 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한 후에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가중될 것 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 출범 후 초기 촉진이 대통령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며 "당 내홍부터 정리돼야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시간표를 확정하고, 당헌·당규 개정, 새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 지명까지 일주일 남짓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대표 6일 출석 통보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 "정치보복 강력 맞설 것"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중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그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대해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7곳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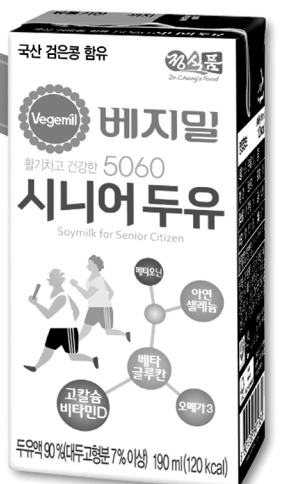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D
- 단백질 보충을 위한 아미노산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 셀레늄(Se)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든 1577-0426 소플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 외 |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